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 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윤진 · 최정훈 · 김영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성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는 성인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성역할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할 것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인 Eisler와 Skidmore(1987)의 MGRS 척도와도 일치되는 문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전문화적인 남성성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서울지역 거주 415명의 성인남자(20세~49세)를 대상으로 성역할 점사를 실시하여 4가지 성역할지향집단을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차이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가 4가지 성역할지향집단에 골고루 분포되었고, 미분화집단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문화의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남성성역할 척도의 요인분석과, 남성성역할 특성과 불안·우울장애 경향과의 관련성 및 기타 성역할 사회화 요인의 관계등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가지 성별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존재로 이해되고 취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활동에 지중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신체적 연약성, 가사노동과 육아역할 수행 등, 자신의 적성이나 자발적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규범에 의해 강요된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인습적 역할로 여성의 역할과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결국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과 기회불균형을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적 차이까지 유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여성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와 취급, 그에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부적응, 더 나아가 정신적 건강수준의 하락과 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논의되어 왔고 그 심각성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이 가정관리, 출산 및 육아 중심으로 규정되는 데에 따라 생겨나는 부수적인 결과로 이러한 여성성역할 이외의 사회적 역할이 대부분 "남성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성도 자신의 적성과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인습적으로 주어진 남성 성역할 규범을 강제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남성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제약과 압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이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남성성역할 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는 외국에서 시작된지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연구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역할 수행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에 관한 심리적 연구는 출생직후부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오면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사회화의 경로탐색에서부터 출발한다. 여아의 경우 성장하면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연장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아의 경우 개별성 내지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찍이 공생관계를 종결지으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성별(性別)이 같고, 같은 일을 담당한 딸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 즉, '인격적 동일시(personal identification)'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이 되어가지만, 아들은 그러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위치적 동일시(positional identification)'를 통하여 남성됨을 배운다. 이와같이 남성과 여성은 다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Chodorow, 1974).

여기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파생된다. 즉, 남성의 성격 특성은 목표나 성취지향적이고 통제력있으며 독립적, 지배, 권위와 같이 직업활동에서 지도적 위치와 역할에 적합한 긍정적 특성들과(김영희, 1988), 과묵하고 포용력있으며 뚜렷하여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목화된다(정진경, 1989). 반면, 여성의 성격 특성은 복종, 동경심, 의존성, 언어지향성, 내성적, 감정적 등과 같이 가정밖에서의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특성이기보다는 가정내에서 집안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데 적합한 특성으로 유목화 된다(김영희, 1988, 1989; 정진경, 1989).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남아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자신

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Bardwick과 Douvan, 1971), 남성이란 성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처벌을 받으며(Hartley, 1959), 국민학교 교사들도 독립적인 남아에 비해 의존적인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Leviton과 Channie, 1972; Sexton, 1969).

뿐만아니라, 여자아이들은 남성의 특성을 획득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스러우나, 남아아이들의 경우에는 성고정관념 습득을 더 강하게 강요받기 때문에 남아들이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더 일찍 습득하여 인지하게 된다(Fling과 Hanosevitz, 1972; Lansky, 1967). 이러한 차이는 여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차문화연구(Best 등, 1977)나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경미(1981)의 연구에서도 이미 확실히 밝혀진 바 있다. 성역할에 적합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은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 및 성인기로 발달, 성장하면서 더 많이 나타나고(O'Leary와 Donaghue, 1978), 만일 남성성역할에서 벗어났을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개인이 우울증 경향을 보이는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타인으로부터 더 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Berndt와 Heller, 1985; Costrich 등, 1975).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Broverman 등(1972)이 정신건강 문제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정신과전문 사회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성은 '유능하다, 독립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기술하는 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성은 '감정에 호르기 쉬운 경향이 있다. 자만심이 있다. 복종적이다'와 같이 덜 건강한 특성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적 특성이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징표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밝힌 점에 의의도 있으나, 남성적 특

성으로는 매우 건강한 특성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적 원인으로 인해 남성이 수동성, 무기력, 자신감의 결핍 등을 보이면 이는 남성성의 고정관념에 위배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됨을 암시해 준다.

대인 관계의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성을 결여한 남성으로 타인에게 지각되면 주위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이 많아진다(Hammer와 Peter, 1977). 또한 '이상적 남성'으로 자신을 지각하지 못한 남성은 자기비하와 개인적 부적응으로 고통받는다(Dentch와 Gilbert, 1976).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남·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즉, 개인이 '능력부족'인 경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만 남성들은 성역할에 있어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받는다(Feather와 Simon, 1975).

남성성역할 문제의 연구경향

그동안 수행되어온 남성성역할의 심리학적 접근 가운데 Joseph H. Pleck(1981)의 「남성성의 신화(The Myth of Masculinity)」라는 저서가 가장 종합적인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성역할 문제는 '남성성역할 정체감(Male Sex Role Identity = MSRI)'과 '성역할 긴장(Sex Role Strain = SRS)'이란 두가지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남성성역할 정체감(MSRI)은 11가지의 가정하에 성립된 것인데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역할 정체감은 심리적 남성성 또는 여성성차원으로 개념화된 '심리적 성정형화'의 측정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다. 2. 성역할 정형화(Sex-typing)는 동일사-모델링으로 생성된 것인데,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성정형화된 특질의 강화와 인지학습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3. 특히 남성에게 적절한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은 실패의 가능성이 많고 위험이 따르는 과정이다. ... 5. 적절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려는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역할 정체감은 심리적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11. 직업에 있어서

의 역사적 변화와 가족의 조직변화는 남성으로 하여금 남성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 하나의 대안인 성역할 긴장(SRS)은 자기 내적인 심리적 적응이나 욕구보다 '사회적 인정'과 '상황적 적응'에 초점을 둔 것인데 전체 10가지 가정중 다음의 몇가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성역할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규준에 의하여 조작적으로 규정된다. ... 3. 성역할 기준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4. 성역할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5. 성역할을 위반하면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한다. ... 7. 성역할의 위반은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8. 성역할이 규정해준 어떤 특징들은 종종 심리적으로 역기능적이다. 9. 남성과 여성은 모두 직장과 가정내의 역할에서 성역할 긴장을 경험한다. 10. 역사적 변화가 성역할 긴장감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한편, Eisler와 Skidmore(1987)는 남성성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즉,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 MGRS) 측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측정방법은 우선 특정한 상황을 남자가 '위기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평가한 다음, 그 평가에 근거하여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의 척도를 이용한 MGRS 결수는 (1)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에게 있어서 뚜렷하게 높았고, (2) 일반적인 성정형화된 남성성과는 관계가 전혀 없었고, (3) 분노와 불안 등 적어도 두가지 종류의 자기보고에 의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전체 40개 문항)를 요인분석한 결과, (1) 신체적 부적절성, (2) 정서적 표현의 억제, (3) 여성에 대한 종속관계, (4) 지적 열등함, (5) 성취의 실패 등의 5가지 기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남성과 여성이 어떤 특정한 내적, 행동적 및 환경적 상황에 대하여 인지적 평가를 각각 달리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예를 들면, 남성이 겪는 직업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사실상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즉, 인간관계의 원만함과 따뜻함, 억눌린 정서의 표현과 태도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들이 단순히 사회 통념상 '여성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억제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감정표현에의 억제와 방어 노력으로 인해 남성은 직장, 가정 등에서 계속적으로 심리적 긴장상태 속에 생활하게 되며 그 결과 쌓이게 되는 만성적 스트레스는 결국 질병유발과 수명단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효선, 1987; 윤진, 1985).

이와같은 남성의 지나친 성역할 준수는 단순히 본인에게만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남성과 남성간의 우정을 비롯한 인간관계, 직장과 소속단체내에서의 집단역동,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등에 하나의 긴장감을 실어주는 등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전통적 성역할 지향에 대한 대안: 양성성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강한 육체적 힘이나 부드러운 정서의 억압, 여성에 대한 권위적 태도, 같은 남성간의 강한 유대 등을 강조했던 전통적 성역할보다는, 대인적이고 지적인 기술을 요구하며 여성과는 동료로서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강하게 맺는 반면 같은 남성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새로운 남성성역할을 요구하고 있다(Pleck, 1976).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된 요구로 남성은 갈등을 겪게되는데 이는 한 개인내에서 그 개인이 처한 발달단계에서도 각기 달리 나타난다. 즉, 유아기에는 전형적인 남성성역할을 사회화하지만 청년후기 이후에는 지적·정서적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Hartley, 1970; Knox와 Kupferer, 1971). 또한 성정형화된 남성 특질을 갖고 있는 남성은 표현적·양육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Bem, 1975).

산업사회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형태와 가족구조

가 변화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도 변화에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은 남녀 모두에게 현대의 생활구조에 적응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평등한 인간 관계의 성립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양성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정진경, 1987).

종래의 성역할 정체감의 정의에 입각한 성격검사(예: MMPI 등)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의 차원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Sandra Bem(1975)의 양성성(Androgyny) 개념이 밝혀진 이후부터는 이들 두가지 성역할 정체감이 각각 독립된 두가지 차원이며($r=-.03$), 한 개인이 동시에 두가지 정체감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지되었다. 즉, 성격검사 내용에서 볼때 남성특성인 자기주장적, 양심적 그리고 개인 주의적 특성과 여성특성인 동정심이 많고 온화하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등의 특성 이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Bem 성역할 검사(Bem Sex Role Inventory)를 통해 측정된 결과 대학생의 1/3정도가 이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Bem은 이런 개인을 '양성성(androgyny)'이라고 불렀고, 이 두가지 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 즉, 두가지 특성 모두를 갖지 않은 사람을 '미분화 집단(undifferentiated)'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남성성과 여성성에 양성성과 미분화 형태가 추가되어 성역할 정체감이 4가지 형태로 구분되게 된 것이다(정진경, 1987).

따라서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들보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나약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사회에서 성실히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 갈 수 있다(Gilligan, 1982). 또한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1975)은 PAQ(Personal Attribute Questionnaire)와 사회적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인 TSBI(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를 편성시켜 양성성 집단이 다른 세가지 성역할 집단인 남성성·여성성·미분화 집단보다 더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양성성을 소유한 남성은 남성성만을 소유한 남성보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덜 느끼고 개인적 및 사회적 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미분화된 사람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구목적과 가정

이상과 같은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목적과 가정을 설정하고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1.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다.
2. 경험적 자료를 통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미분화 등 한국남성들의 4가지 성역할 지향성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들 4집단간의 남성성역할 스트레스의 정도차이를 검증한다.
3. 응답자의 연령, 학력, 종교 등에 따른 남성성역할 지향유형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4. 아동기의 주성장지, 부/모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부모와의 별거/사별 경험 여부등에 따른 성역할 지향 유형과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5.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 아들양육에 대해 양성성적 태도를 갖는 집단이 남성성적 태도를 갖는 집단보다 더욱 남성성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것이다.

나) 딸양육에 대해 양성성적 태도를 갖는 집단이 여성성적 태도를 갖는 집단보다 더욱 남성성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응답자 본 연구의 응답자는 두가지 연구 단계에

걸쳐 각각 달리 모집되었다. 제 1단계인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구성을 위한 예비연구에서는 총 141명 (연령범위-10대 1명, 20대 101명, 30대 22명, 40대 15명, 50대 2명; 직업분포-학생 90명, 회사원 29명, 상업 4명, 교사 10명, 주부 4명, 기타 4명)이 참가했다.

제 2단계인 본 조사에는 전체 529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질문서 기재의 불성실·반응누락자(81명)와 연령범위 10대(21명) 및 50대 이상(12명)을 제외하고 만 20세부터 49세까지 연령에 속한 415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총 12쪽 질문서인데, 제 1부(응답자의 배경자료), 제 2부(성역할 지향검사) 그리고 제 3부(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제 2부인 성역할지향검사는 김영희(1988, 1989)의 「한국형 성역할검사」(KSRI-Korean Sex Role Inventory)이다. 제 3부의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는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것이다.

절차 제 1단계인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구성에서는 전체 141명의 응답자에게 남성이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을 자유응답 형식으로 적어내게 하였으며 총 860개의 문항을 얻었다. 이 문항과 Eisler와 Skidmore의 연구(1987)에서 얻어진 40개를 합하여 전체 900개의 문항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란 기준에 따라 이를 연구자가 판단하여 분류한 167개 문항을 36명의 전문가 평정에 붙였다. 이때 이 문항들이 남성성역할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문항인가의 "적절성"을 7점 척도 [스트레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0점)-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6점)]에 평정하게 하였다. 이 문항중 남녀양성에게 모두 해당되는 문항(예; 건강하지 못할 경우) 133개에 대하여는 짝짓기 t-test를(5% 유의미 수준 $p=.000$, 평균점수 4.00이상의 문항),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문항(예;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34개에 대하여는 빈도수를 조사하여 적절성의 기준을 잡았다(평균점수 4.00이상). 즉, 남녀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133개 문항 가운데 여성보

다 남성에게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며 그 정도가 중간이상인 상황만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34개 문항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큰 문항부터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4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08$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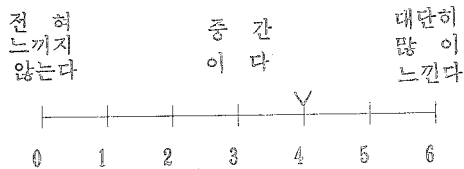
제 2단계인 본 조사의 응답자는 20대 연령의 경우 주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 2개교의 학생들이고, 일반인의 경우(20-40대) 호텔 종업원, 은행원, 회사원, 생산공장 근로자, 교사, 공무원 등 300명으로 이들에게는 질문지를 배부하여 약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결 과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는 다음과 같이 각 경우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제작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몸이 아플 경우 스트레스를



* 나는 다음 경우에 스트레스를

1. 폭력앞에서 무기력할 경우
2. 의지가 약할 경우
3. 흔히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전공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4. 여자 형제보다 능력이 없을 경우
5.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낮에 집에 있는 경우
6. 실직자가 되었을 경우
7. 스포츠를 잘 못하는 경우
8. 여성 상판 아래에서 근무하는 경우
9. 성행위에서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10. 어떤 상황을 여성이 주도하도록 할 경우
11. 자기보다 키가 큰 여성을 만날 경우
12. 다른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13. 승진의 기회를 놓친 경우
14.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
15. 직장에서 여성동료보다 일을 잘 못하는 경우
16. 슬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경우
17. 직장에서 부하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할 경우
18.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경우
19. 학력 등 자신의 개인적 배경이 출세에 장애가 될 경우
20. 빨래, 식사준비 등 자취생활을 해야하는 경우
21. 여성들이 흔히 하는 일이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경우
22.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경우
23. 일을 처리할 때 주위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
24. 토론에서 남에게 기선을 제압당하는 경우
25. 돈이 없어 술이나 담배를 못하는 경우
26. 수줍음을 타는 경우
27.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
28.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데 여의지 않을 경우
29. 두려움이나 겁이 많은 경우
30. 여자와 데이트를 할 때 돈이 없을 경우
31. 가정문제와 직장문제가 동시에 있을때 그 우선 순위로 아내와 다룰 경우
32. 아프거나 피곤해도 남성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해야하는 경우
33.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34. 자기보다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경우
35.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경우
36. 처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경우
37. 가장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능력이 없다는 평을 들을 경우
38. 아내가 당신을 다른 남성과 비교하여 불평을 할

경우

- 39. 군입대 및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 40. 자기보다 아내의 학력이 높을 경우

이 척도는 최고 240점부터 최저 0점까지의 남성성 스트레스 점수가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40개 문항은 전반적으로 현재 기혼남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3.67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중간 이상의 남성성역할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지향 형태 분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응답자의 성역할 경계값 지향 형태는 '한국형 성역할검사'(길 영희, 1988)결과에 의하여 분류된 것이다. 이 검사는 원래 남성성 15문항, 여성성 15 문항 그리고 중립적 내용 10문항 등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인데 이 가운데 남성성 및 여성성 문항 30개만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전체 응답자 415명은 이 척도 점수의 기준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이 용에 의하여 1. 미분화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하,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하) 2. 여성성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하, 여성성 점수 중앙치 초과) 3. 남성성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초과,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하) 4. 양성성집단(남성성 점수 중앙치 초과, 여성성 점수 중앙치 초과)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때의 연령에 따른 성역할지향 빈도분포 및 남성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이 때 4집단의 빈도분포는 아무런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4가지 성역할 지향유형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차이없이 분류·소속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 점수에 있어서는 각 변량분석에서 주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성역할지향유형에 따라 남성성역할에 따른 스

표 1. 연령에 따른 성역할지향 분포 및 남성스트레스 점수 평균

	집 단				계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빈 도					
20대	54	44	44	56	198
30대	42	25	35	44	146
40대	18	20	20	13	71
계	114	89	99	113	415
스트레스 점수 평균					
20대	3.52	3.61	3.83	3.91	3.72
30대	3.37	3.71	3.49	3.85	3.60
40대	3.25	3.65	3.78	4.09	3.66
계	3.42 ^a	3.65	3.70	3.90 ^b	3.67
	(.74)	(.71)	(.86)	(.67)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 빈도분포 $\chi^2 = 6.42$ n.s.
- 스트레스 점수 4 집단간 주효과 $F(3,411) = 8.02$ $p < .000$
- 점자 a, b는 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집단을 나타낸 것임 (Scheffé 다원구획검정)

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짐을 뜻한다. 이들 4집단의 평균점수를 Scheffé 다원구획검증에 붙인 결과 양성성집단(M=3.90)과 미분화집단(M=3.42)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미분화집단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교육 수준별, 종교별, 주성장지별 성역할지향형태에 따른 응답자 빈도분포와 스트레스의 정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성장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부모의 경우로만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M=3.55)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M=3.77)이 의미있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지향과 영향을 주는 인물사이의 상호작용은 없다(표 2). 또한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태도와 성역할지향 및 스트레스 정도에는 약간의 시사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아들과 딸을 각기 더욱 남성답게나 더욱 여성답게 양육하려는 태도와 아들이전 딸이전 양성적으로 키우려는 양육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아들 및 딸의 양육태도와 성역할 지향 형태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아들을 더욱 남성답게(M=3.78), 딸을 더욱 여성답게(M=3.79) 키우려는 응답자들이 아들 및 딸을 양성적으로 키우려는 응답

자들보다(아들: M=3.69, F(1,348)=1.02, p<.31; 딸: M=3.64, F(1,332)=3.77, p<.053)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논 의

한국남성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지향형태와 그 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과정과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논의할 수 있겠다.

1.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 Eisler와 Skidmore(1987) 척도 문항중 13개 문항(본 척도의 5번~17번)이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한국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척도 문항과 일치된 점에서 볼 때, 본 척도가 현대를 사는 한국 남성의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비교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성역할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 성장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및 성역할 지향형태와 스트레스 점수 분포

	성역할 지향집단의 종류				계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빈 도					
부	32	29	37	35	133
모	54	38	36	55	183
계	86	67	73	90	316
스트레스점수					
부	3.22	3.64	3.66	3.69	3.55
모	3.52	3.74	3.86	3.97	3.77
계	3.41	3.70	3.75	3.87	3.68
	(.75)	(.61)	(.84)	(.69)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 빈도분포 $\chi^2=3.47$ n.s.

* 스트레스 점수 4 집단간 주효과 F(3,411)=6.59 p<.001

* 성장기 영향 인물간 주효과 F(1,314)=7.89 p<.005

표 3. 아들·딸에 대한 양육 태도별 성역할 지향형태와 스트레스 점수 분포

	성역할 지향집단의 종류				계	%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아들에 대한 양육태도						
1. 빈도						
더욱 남자답게	27	16	29	23	95	23.1
양성적으로	66	55	54	80	255	61.9
신경쓰지 않는다	7	4	4	4	19	4.6
자유롭게 놔둔다	13	14	10	6	43	10.4
계	113	89	97	113	412	100
2. 스트레스 점수						
더욱 남자답게	3.52	3.69	3.81	4.12	3.78	
양성적으로	3.53	3.66	3.61	3.91	3.69	
신경쓰지 않는다	2.91	3.47	4.05	3.71	3.54	
자유롭게 놔둔다	2.99	3.61	3.76	3.18	3.39	
계	3.24	3.61	3.81	3.73	3.60	
딸에 대한 양육태도						
1. 빈도						
더욱 여자답게	48	38	50	57	193	47.4
양성적으로	47	33	32	46	158	38.9
신경쓰지 않는다	5	4	4	3	16	3.9
자유롭게 놔둔다	12	12	10	6	40	9.8
계	112	87	96	112	407	100
2. 스트레스 점수						
더욱 여자답게	3.50	3.80	3.78	4.01	3.79	
양성적으로	3.50	3.61	3.61	3.84	3.64	
신경쓰지 않는다	2.99	2.98	3.47	4.05	3.37	
자유롭게 놔둔다	3.07	3.56	3.75	3.33	3.43	
계	3.27	3.49	3.65	3.81	3.56	

- 아들에 대한 양육 태도 ○ 스트레스 점수 4 집단간 주효과 $F(3,411)=7.42$ $p<.001$
○ 양육 태도 주효과 $F(3,310)=2.76$ $p<.042$
- 딸에 대한 양육 태도 ○ 스트레스 점수 4 집단간 주효과 $F(3,411)=3.51$ $p<.000$
○ 양육 태도 주효과 $F(3,306)=3.42$ $p<.017$

이 남성성역할 스트레스척도는 앞으로 불안감, 분노, 우울증경향 등 상호 관련된 변인들과 연관시켜 그 타당도를 측정하고 성역할 고수와 관련된 실리적 부적응 연구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포괄적인 문항들이 보충, 보다 광범위한 응답자의 표집 등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여 요인분석 등 추후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남성성역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전체 응답자 415명을 대상으로 Bem성역할 분류방식에 따라 미분화집단, 여성성집단, 남성성집단, 양성성집단의 4가지로 구분한 결과 그 빈도수가 4집단 모두 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흔히 전통적 고정관념으로 볼때 한국남성들은 남성성집단 속에 가장 많이 분류되고 양성성집단 내지 여성성집단에 분류되는 빈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성집단과 양성성집단도 전통적 남성성 집단에 못지않게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도시의 젊은 남성들(이 연구의 응답자인 20-40대)이 전통적 남성성에 얽매어 있지 않고 다양한 성역할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화집단에 다른 세가지 집단과 비슷한 빈도수가 포함된 것은, 그 빈도수가 매우 적게 출현하는 서구인들 대상의 연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다. 이는 전체의 1/3정도가 양성성집단에 분류되고 미분화 집단에는 그 빈도수가 극히 적은 Bem(1974)을 비롯한 미국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가 난다. 성역할 미분화집단이란 남성성과 여성성 두가지 차원 모두에서 그 특징점수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남성의 경우 적극적인 남성성도 발휘하지 않는 동시에 소극적이며 감정적인 여성성 표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특질을 상당히 드러내 보이는 경우보다 이를 내면에 숨겨둔 것이 오히려 더욱 "남성답게 보이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3. 이들 4가지 성역할지향집단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1) 양성성집단, 2) 남성성집단 및 여성성집단, 3) 미분화집단 순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며 상황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성성집단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와 반대로 적응력이 가장 낮다고 알려진 미분화집단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은 특이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성 및 여성성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이를 분명하게 포출시키는 남자에게 많은 사회적 제약과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비해 오히려 남성특성과 여성특성 모두를 나타내지 않고 어느 중간지대[이를 중용(中庸)라고 부를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를 점유하고 있는 남성에게로 사회적 압박이 덜 가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분화집단을 남성성집단보다 오히려 더욱 남성답게 보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남성성 또는 여성성보다 더 상위

에 있는 현자(賢者)의 위치로써 양쪽에 치우치거나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여 분명한 태도를 드러내보이지 않고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또는 넓은 도량을 갖는 것)을 "미분화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배출해낸 '이상적' 남성이란 한편으로는 평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면서 현실생활에서는 상당히 나약하고 상호의존적인 인간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인간관계(정파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성이 높은 남성이었고, 따라서 책임, 결단, 독립성, 성취주의, 힘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인간상인 서구식 남성상에 현재 한국 남성이 많이 근접해 있긴 하지만, 일치될 수 없는 기본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다(조혜정, 1986).

또한 서구 산업사회와 같이 남 - 녀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남녀간의 역할 분화 또는 통합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되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남성성-여성성과 같은 성역할 정체감지향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오지 않아 남성성/여성성의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조혜정, 1988).

4.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별, 종교유무별, 국민학교까지의 주성장지별, 성장시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부모, 부모와의 별거 및 사별경험 등에 따른 성역할지향의 빈도수 차이와 스트레스척도에 있어서의 점수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75.4%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으며, 이러한 편포로 인하여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도 예언과는 달리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별거 또는 사별 경험, 아동기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성인인 부모와의 관계 등이 성역할 지향형태의 결정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를 얻

지 못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별거문제가 대부분 성장한 후의 별거 경험(전체 45.3%)이므로 대학진학, 취업등으로 대부분 성장한 후의 별거경험 뿐이며 진정으로 측정 연구되어야 할 출생직후부터 11세경까지의 유아-아동기의 별거여부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부모 사망의 경우는 전체의 16%이며 그 기간 역시 20세까지였으므로 너무나 연령범위가 넓었다. 앞으로 출생부터 - 5세, 6세 - 11세까지 이내에서 부모의 장기 별거, 격리생활, 또는 사망의 경우만 표집하여 사회화과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변별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부모 가운데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은 부(32.2%), 모(44.3%)였는데 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이 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 두 집단간의 성역할 지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5.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 태도에 있어서 응답자가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아들은 더욱 남자답게(23.1%) 키우거나 양성적으로(61.9%) 키우려고 하지만, 딸은 더욱 여자답게(47.4%) 키우거나 양성적으로(38.8%) 키우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아들은 남성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적으로 자라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하지만, 딸은 여전히 여성성역할 고정관념에 맞게 키우며 동시에 여성성역할에서 벗어나는 양성성적 행동특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변별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윤진, 1981, 1985). 이러한 아버지의 자세를 가지는 한 장래의 성역할고정관념의 해소와 남녀평등은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딸 양육에 대해서는 4가지 성역할지향집단간의 스트레스 평균점수간에 경제선적으로 의미있는 차이 $[F(1,332)=3.77, p<.05]$ 가 있는데 양성적으로 키우려는 아버지 보다 더욱 여자답게 키우려는 아버지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특히 딸에 관하여 성역할고정관념에 더 많이 얽매어 있고 현재도 그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한 것이다(이주연, 1985; Berndt와 Heller, 1985).

6. 이 연구는 종래에 있어왔던 여성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에 더하여 남성성역할 스트레스 연구에 하나의 시발점을 이루게 된다. 흔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사회적 제약과 편견, 또는 그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오직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적장남성의 부적응과 소의문제를 밝힌 김효선(1987)의 사회학적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역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남성성집단과 양성성집단이 미분화집단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7. 요리사나 의사디자이너, 간호사, 미용사,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종사하거나, 프로 펜터나 레슬링 등 격한 운동선수, 중장비 기술자, 직업군인, 강력계 형사, 암벽 등산가 등과 같은 전통적 남성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각기 그들이 성장기에 자신의 선호와 적성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동료들이나 주위의 평가로 인해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게되는 성역할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성에 대한 '남성성 성역할 사회화'의 지나친 강조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역할 규범에 따라 중중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엄격한 남성성역할 규준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남성성 및 양성성의 남성일수록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므로 그 사회의 변천 양상에 맞추어 성역할에서의 신축성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양식과 기타 사회규범형성

에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기 시작하는 '남성해방운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는 폭넓고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1981). 취학전 아동의 성역할 식별 및 선호 발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1988). 한국성역할검사(Korea Sex Role Inventory) 개발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7, 153-18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 김영희 (1989). 한국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5, 21-35.
- 윤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제 8장, 남녀차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주연 (1985). 아동의 성역할 태도 발달과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황과 그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포과제 보고서.
- 조혜정 (1986). 현대의 부부관계: 남녀 평등과 인간화. 서울: 현상과 인식.
-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rdwick, J. M., & Douvan, E. (1971). Ambivalence: The socialization of women. In V. Gornick & B. K. Moran (Eds.), *Women in a sex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rndt, T. T., & Helier, K. A. (1986).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inferences: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89-898.
- Best, D. L., Williams, J. E., Cloud, J. M., David, S. W., Robertson, L. S., Edwards, J. R., Giles, H., & Fowles, J. (1977). Development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you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Ireland. *Child Development*, 48, 1375-1384.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Chodorow, N. (1974).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M. Z. Rosaldo & L. 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strich, N., Feinstein, J., Kidder, L., Marecek, J., & Pascale, L. (1975). When stereotypes hurt: Three studies of penalties for sex-role revers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520-530.
- Deutch, C. J., & Gilbert, L. A. (1976). Sex role stereotypes: Effect on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and on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373-379.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ocial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 123-136.
- Feather, N. T., & Simon, J. C. (1975). Reactions to male and female success and failure in sex-linked occupations: Impressions of personality, causal attribution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different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0-31.
- Fling, S., & Manosevitz, M. (1972). Sex typing in nursery school children's play interests. *Developmental Psychology, 7*, 146-15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maner, C., & Peters, S. (1977). Differential responses to male and female depressive re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994-1001.
- Hartley, R. E. (1959). Sex role pressures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male child. *Psychological Reports, 5*, 457-468.
- Hartley, R. E. (1970). American core culture: Continuing and change. In G. Seward & R. J. Williamson (Eds.), *Sex roles in changing society*. New York: Random House.
- Knox, W., & Kupferer, H. (1971). A discontinuity in the socialization of males in the United States. *Merrill-Palmer Quarterly, 17*, 251-26
- Lantsky, L. M. (1967). The family structure also affects the model: Sex role attitudes in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13*, 139-150.
- Levitan, T. E., & Channie, J. D. (1972). Responses of female primary schoo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17-1031.
- O'Leary, V. E., & Donaghue, J. M. (1978). Latitudes of masculinity: Reactions to sex-role deviance in men. *Journal of Social Issues, 34*, 17-28.
- Pleck, J. H. (1976). The male sex role: Definition, problems and sources of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55-164.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exton, P. C. (1969). *The feminized male: Classrooms, white collars and the decline of manliness*. New York: Random House.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P.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44.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Male Sex-role and Psychological Stress(I) - Male Sex-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Related Variables

Gene Yoon, Chunghoon Choy, and Youngmee Kim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male sex-role stereotypes and male psychological stress. In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a male sex-role stress scale was developed. This scale is consisted of 40 items which evaluate the stress concerning sex-role in the daily life. For this scale includes several common items which belong to the previous study for male gender role stress(MGRS) by Eisler and Skidmore(1987), it is possible to apply for universality and cross-cultural aspects of the male sex-role stress. In the second stage, the sex-role orientation of 415 males(age 20-49) were measured, and th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sex-role orientation groups. And also the differences in the male sex-role stress between the groups were tested. The results were that the respondents were evenly divided into four different sex-role orientation groups and among them the undifferentiated sex-role orientation group has the least male sex-role stres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the unique factor in Korean sex-role stereotype, contrasted to Western trends. It is also suggested for further studies that the factor analysis for male sex-role stress scale, the relations between male sex-role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tendencies, and several sex-role socialization factors have to be explored.